

강진군, 챗GPT로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한다

10회 걸쳐 디지털 업무 교육 실시
콘텐츠 제작·자동화 등 5가지 주제
반복 업무 자동화로 시간 단축까지
챗GPT 행정문서 작성 단계별 실습

강진군이 공직자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실습 위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공직자들이 실무에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민원인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5급, 6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역량 강화가 전 직급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이다.

관리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전반적인 업무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리자들 역시 디지털 기술의 실제 활용법을 이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 과정은 '콘텐츠 제작', '챗GPT(기초, 초급, 중급)', '엑셀 매크로(업무 자동화)' 다섯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과정에서는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해 카드뉴스와 홍보 자료를 직접 제작했고 챗GPT 수업에서는 기본 질문 작성부터 행정 문서 작성까지 단계별 실습이 이뤄졌다.

마지막 '엑셀 매크로' 과정에서는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법을 익혀 실무에서의 시간 절약과 효율 증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공직자들이 디지



강진군이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직자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강진군 제공

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해 강진군이 선도적인 행정 혁신을 이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더 나은 주민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직원들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최신 기술 전시회 관람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원 간 토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금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시의료원 비상임이사 모집 29일까지 접수...총 6명

목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차기 목포시의료원 비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목포시는 현 목포시의료원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내달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이사 임명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통해 공모 방법 및 후보자 추천 방식 등을 결정했다.

이사 후보자 자격 요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목포시의회, 지역보건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의 추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등 총 6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사 임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12월에 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임용 후에는 의료원 업무의 중요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응모는 목포시 누리집(www.mokpo.go.kr) 공고 내용을 참고해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9일까지 목포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목포시 원산로45번길 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위생과(061-270-8943)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군, 2025년 지적재조사 실시 개신지구 등 6곳 선정

영암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영암 개신지구 등 6곳을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경계·면적 등을 최신 기술로 정밀 측정해 등록해 지적의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영암군은 국비 4억원을 확보해 영암 개신, 신북 학동2와 이천, 군서 도갑, 서호 태백과 미암 호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19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실시계획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의 현장 사무소 운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서 제출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순으로 2년 동안 진행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선정 해남군, 국도비 10억원 확보

해남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특정 지역의 주택, 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태양열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3kW 태양광 설치 시 월평균 4~5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까지 읍면별로 4년동안 사업을 추진해 총 1691개소에 설치 지원했다.

3kW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 평균 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되는 등 에너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해남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도비 10억원과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9900만원을 투입해 464개소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해남=전연수 기자



제2회 FC목포 축구단배 꿈나무 스토브리그에 전국 430여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국제축구센터, 유소년 축구 대회 성료

'제2회 FC목포 축구단배 꿈나무 스토브리그'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목포 국제축구센터 인조A구장 외 3개 구장에서 진행됐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스토브리그(전력보강기 대회)는 FC목포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와 미래 축구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획됐다.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된 전국 각지 U-12(12세 이하) 유소년팀을 초청해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상반기에 이어 제2회 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리그에는 경기,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12개 클럽(36개팀)에서 430여명의 선수와 3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경기는 3학년, 4학년, 5학년 학년별로 전후반 25분씩 풀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FC목포 구단주 박홍률 목포시장장은 "제2회 FC목포 축구단배 꿈나무 스토브리그가 한국 축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국제철새심포지엄 공동 개최

동아시아 바닷새 서식지 보전 논의

신안군이 오는 21일 신안 자은도에서 제13회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국립공원공단과 공동 개최한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안군과 다도해에 분포하는 철새 서식지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으로 인한 위기로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철새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방안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신안군이 동아시아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다양

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 2007년부터 이어 오고 있고 올해는 세계 곳곳의 철새 전문가가 참석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세계의 철새와 서식지를 보호하는 국제기구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아시아지부(BirdLife Asia) 전 대표 노리타카 이치다(Noritaka Ichida) 박사를 비롯한 일본 바닷새 연구 권위자인 핫카이도 대학의 와타누키 유타카(Watanuki Yataka) 교수, 일본 조류연구소 심바 찬(Simba Chan) 선임 연구원과 홍콩 야생조류협회장 양통 유(Yat-Tung Yu) 박사가 연사로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국립공원공단 조류연구센터장인 황보연 박사와 바닷새연구소 대표 김미란 박사,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 이윤경 박사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조류학회 회원 등 조류 전문가가 150여명도 참석해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올해가 13회째로 철새를 위한 국내 최장기 심포지엄으로 철새의 핵심 서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신안군의 지속적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동 개최하는 국립공원공단 함께 신안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꿀벌 월동 사양관리 지도 봉군 모니터링 등 적극 실시 당부

해남군이 겨울철 꿀벌의 월동을 위한 사양관리 점검표를 작성해 꿀벌 사육농가에 배부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사양관리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꿀벌 월동을 대비해 점검해야 할 주요 사항은 양봉장 전체 봉군 상태 확인을 통한 세력 고르기, 꿀벌 병해충(꿀벌응애 등) 월동 전 최종 방제 관리, 월동 중 양봉장 관리 및 봉군 모니터링 등이다.

양봉장 전체 봉군 상태 확인을 통한 세력 고르기를 위해서는 지역별 기상여건에 따른 여왕벌 산란 및 종료시기를 결정하고 전체 봉군의 월동 먹이량을 확인해 먹이 부족 시 당액 제조 후 급이, 월동 자격 봉군은 3~5매 이상 벌집에 일벌 착봉률 100%를 확인, 저밀소비 조정을 통한 꿀 증축 등 월동 먹이 관리가 필요하다.

또 꿀벌 병해충 방제를 위해 응애 방제 시 천연 성분 방제제를 우선 선택하고 양봉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과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합성화학제 성분 선택 시 성분 기준으로 순환 사용해야 하며 응애에 저항성이 있는 성분은 제외해 사용한다. 국내 허가된 의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 성분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 월동 중 방습, 방수, 보온 등 양봉장 관리와 봉군 모니터링으로 병통을 철저히 포장해 월동 봉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시군 축산부서,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